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32>]독일 최대 온실식물원... 대륙별·종류별 특화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입력 : 2004. 12.07. 00:01:00



제1부/제주식물 세계화 100년<31>유럽의 식물원을 가다(중)

독 프랑크푸르트 팔멘식물원

1817년 조성...방향식물·식충식물 등 독특

2백년 걸쳐 수집·전시...각종 이벤트 열려

독일 프랑크푸르트 시내 중심가에는 2백년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식물원이 자리잡고 있다. 독일 최대의 온실이 있는 팔멘식물원(Palmengarten)이다.

팔멘식물원은 1817년에 조성됐다. 3천여 종의 난초와 1천6백여 종의 선인장을 비롯해 방향식물, 식충식물, 양치식물 등이 수집 전시되고 있다.

팔멘식물원의 자랑은 온실식물원이다. 대륙별, 식물 종류별, 진화과정별로 온실이 특화돼 있다.

양치식물원에 들어서면 성인 남자 키의 세배가 넘는 원시 식물들이 식물원 천정까지 닿아있다. 전 세계에는 약 3만여종의 양치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약 3백종이 분포한다. 이 가운데 80%이상이 제주에 자생할 정도여서 제주는 양치식물의 보고라고도 한다. 그러나 제주에 양치식물만을 보여주는 온실식물원은 찾아볼 수 없다.

사바나식물원에는 사막과 아프리카 식물들이 수집 전시돼 있다. 곤충을 먹고산다는 식충식물만을 위한 온실도 따로 완비돼 있다.

팔멘식물원에는 종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서식처별, 원래 수집되어진 장소에 대한 역사, 채집된 경위 등에 대한 기록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식물을 설명하는 표찰도 식물원의 관심과 정성이 느껴진다. 2백년에 걸친 식물원 조성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져 왔는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팔멘식물원은 독일의 최대 도시인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위치해 있어서 교육적, 관광자원적 가치도 매우 높다. 독일내 학생과 연구자들이 열대식물원을 찾아 현장에서 식물의 생태생리에 연구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식물원에는 연구·전시 이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기도 한다. 이벤트들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알차게 꾸며진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았을 때는 식물원내에서 가을축제가 한참 열리고 있었다.

인근에서 재배된 온갖 과일과 채소들이 식물원내 온실에 전시돼 풍성한 가을걷이를 자축하고 있다. 특히 이런 이벤트들은 일상적으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과 식물원이 마치 친근한 이웃처럼 어우러지게 하는 매개역할을 한다.

▲독일 최대도시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 위치한 팔멘식물원은 조성된지 2백년 가까이 된 유서 깊은 식물원이다. 3천여종의 난초와 방향식물, 식충식물 등 전세계에서 수집된 각종 식물들이 온실에 전시되고 있다.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